

CARE WORK AND THE ECONOMY

Advancing policy solutions with gender-aware macroeconomic models

POLICY BRIEF | 20 – 02K

내생적 성장, 인구 역학, 규모수익: 인구구조변화와 장기적 거시경제 모형

James Heintz,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mherst
Nancy Folbre,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mherst

CWE-GAM Working Paper Series: [19-01](#)

POLICY HIGHLIGHTS

본 모형에서는 규모수익의 체감(추가 생산요소 투입 대비 추가 생산 비율이 감소), 불변, 체증(추가 생산요소 투입 대비 추가 생산 비율이 증가)이 가능하다.

규모수익체감:

- 규모수익체감의 생산성을 가진 저소득 국가는 높은 출산율과 낮은 일인당 국민소득이 반복적으로 강화되는 상황에 빠질 수 있다.

- 위와 같은 "높은 출산율 함정"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교육과 직업훈련 등에 대한 추가적 투자와 같은 외부적 개입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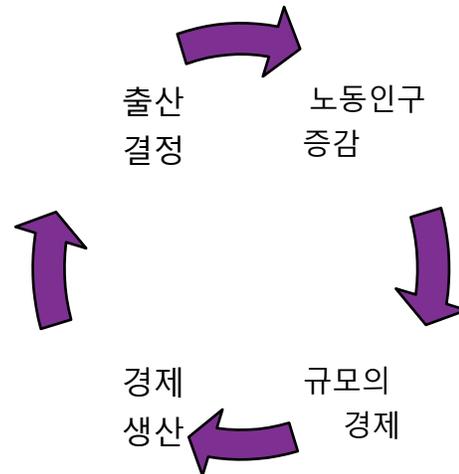
규모수익체증:

- 규모수익체증의 고소득 국가는 양육 비용의 증가로 인해 인구 감소를 경험하게 된다.

- 저출산율로 인해 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며, 사회보장제도와 보건의료지출에 대한 압박이 증가한다.

- 양육비용지원 등을 통한 가계의 양육비용을 감소시키는 정책이 인구역학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성인 이민에 대한 장벽을 낮추는 것 또한 한 가지 대안이 될 수 있다.

인구구조와 규모수익(체증, 불변, 체감)은 장기적 경제성장 모형을 설계할 때 필요한 중요 요소이다. 많은 연구에서 가계 규모 결정이 경제적 조건에 영향을 받으며, 그 결과로 나타나는 출산률이 인구 증가 혹은 감소를 결정짓는다고 말한다. 그러나 기존의 장기 경제 성장 모형은 인구 증가를 기정사실화하거나 무관하게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또한 이런 모델들은 생산 특성이 다양하지만, 규모수익불변의 생산함수를 종종 가정한다.



본 연구는 사회기관, 경제의 구조적 특징, 그리고 거시경제 결과가 출산 결정과 경제 성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기 위한 모형을 제시한다. 보다 사실적인 인구 역학을 고려할 때, 사실적인 거시 경제의 궤도를 예측할 수 있으며, 보다 중요한 정책점 함의를 도출 할 수 있다.

Brief prepared by: James Heintz, Nancy Folbre, and Catherine Hensly
CWE-GAM Working Paper 19-01: [Endogenous Growth, Population Dynamics, and Returns to Scale: Long-Run Macroeconomics When Demography Matters](#)